



코스피 2147.00 (+59.81)	코스닥 737.66 (-5.92)
금리 (연이자율) 0.866 (+0.015)	환율 (1달러) 1216.80 (-8.60) (3일)



[산업]
베일 벗은
신형 싼타페
08

역대최대 35.3조 슈퍼 추경 24조 빛내... 건전성은 최악

코로나 3차 추경

코로나 극복 신성장동력 창출
정책패키지 규모 270조 달해
홍남기 "재정건정성 악화 감내
중기적 재정건정성 확보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정부가 35조3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산업계와 상인들이 경제위기를 버티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움추러든 가계에는 소비 촉진과 고용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 이후 신산업 분야 선도를 위해 올해 5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도 시작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해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

받침할 재원을 5조원 넣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300억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하고,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는 1115억원을 배정했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유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900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로는 디지털 뉴딜(2조7000억원), 그린뉴딜(1조4000억원), 고

용 안전망 강화(1조원) 등에 올해 안으로 5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년간 총 76조원을 쓴다.

중소기업 8만 곳에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을 이용하도록 하는 바우처 지원에 2880억원을, SOC 디지털화에 4800억원, 산업단지 및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용자지원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이번 3차 추경을 포함하면 코로나19발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나 된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악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서 단기내 성장을 이끌어내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 재정당국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광주·울산·경기 시흥 인공지능 수소 무인이동체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부 3개 지역·8개 지구 선정
광양만 울촌3산단은 지정 해제

광주, 울산, 경기도 시흥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됐고, 광양만 울촌3산단은 지정 해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광주·울산·황해(시흥) 추가지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I·II 등 4개 지역이 선정됐다. 울산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트로켄오토밸리, 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역이 선정됐고, 경기도 시흥 배곧지구는 황해안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과거 미개발지를 지정해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기존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먼저 고려했다. 또 국가 산업과 지역정책 연계성을 강화해 산업·연구기관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단시일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지정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이번에 3개 지역·8개 지구(9.951km²)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내의 기업 투자 8조3000억원, 생산유발 23조2000억원, 고용유발 12만9000명, 부가가치 유발 8조7000억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생

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체 의료, 스마트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등을 집중 육성해 외투유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AI 중심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소 등을 유치해 2027년까지 총 1조6279억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0조3641억원, 고용유발 5만7496명 등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은 전주기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 및 운동·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4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작년 성장·수익성 악화 3곳 중 1곳 이자도 못내

한은 2019기업경영분석
제조업 매출액 3년만에 감소전환

지난해 국내 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모두 악화했다. 매출액은 4년 만에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하락했다. 수익성 악화로 3곳 중 1곳은 이자를 낼 만큼의 돈도 못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외부감사대상기업 2만5874개의 매출액증가율은 2018년 4.2%에서 -1.0%로 뒷걸음질 쳤다. 매출액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2015년(-2.39%) 이후 4년 만이다. 매출액증가율은 기업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매출액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성장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특히 제조업 매출액이 크게 흔들렸다.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2018년 4.

5%에서 2019년 -2.3%로 감소 전환했다. 지난 2016년(-1.4%)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8년 6.9%에서 2019년 4.7%로 하락했다.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8.3%에서 4.6%로 '반토막'이 났고, 비제조업도 5.1%에서 4.8%로 하락했다.

대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2%에서 4.6%로 떨어졌고, 중소기업은 5.6%에서 5.2%로 하락했다. 성장성, 수익성 지표에서 모두 대기업 충격이 더 컸다. 번 돈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3곳 중 1곳이 나왔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비용(이자)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593.3%에서 360.9%로 크게 하락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금융비용부담률이 커진 영향이다.

/김희주 기자 hj89@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특례수입 승인

일본, 조속한 국내 수입 협의
중증환자 중심으로 투여 예정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연합뉴스

세계 유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된 '렘데시비르'의 국내 수입 허가가 떨어졌다.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중심으로 투여가 시작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하여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는 의약품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최종 결정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다.

(4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